

KLI 패널브리프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이규용 | 발행일 2015년 6월 4일(목) |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제2호

저소득층¹⁾ 단독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 결과 단독노인가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 추세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대부분은 75세 이상 저학력 미취업 여성으로 구성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이전소득이며 다음으로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득원이 있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소득액도 현저히 낮은 편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6만원(2011년 기준)이고, 주요 소득원으로는 이전소득의 77.6%를 차지

1

분석목적및방법

□ 분석목적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2년 11.8%, 2014년 12.7%이고 2018년 14.5%로 꾸준히 증가하며 2030년에는 24.3%에 이를 것으로 추정²⁾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단독노인가구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적 특성 및 소득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방법

- 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며, 다음의 3개 하위그룹(단독, 부부 및 기타노인가구)으로 구분
 - 단독노인가구 : 혼자 사는 노인가구
 - 부부노인가구 : 부부로 구성된 노인가구
 - 기타노인가구 : 단독 및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노인가구(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동거가 해당)
-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7~15차(2004~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임

1) 본 글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준을 소득 하위 20%로 정함(5분위수값은 전체 가구의 실질 균등화된 월평균 총소득으로 산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년 12월 작성 기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 / snp625@kli.re.kr



노인가구의 추세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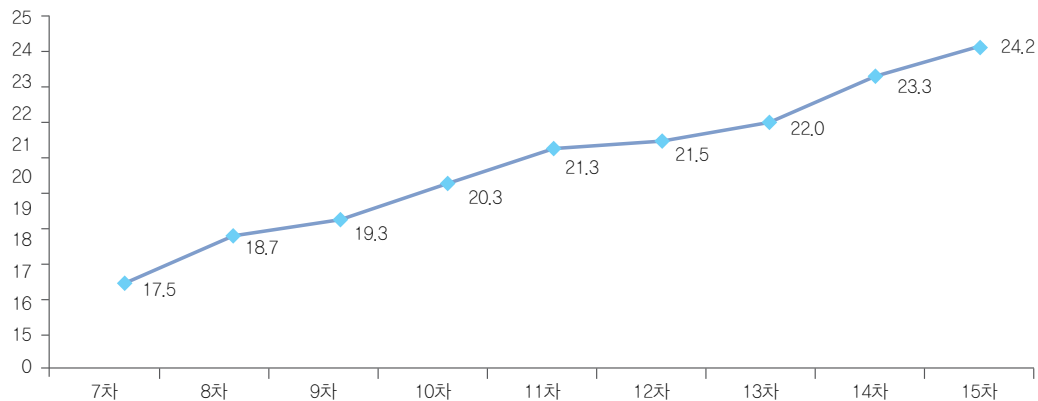
□ 노인가구 분포

○ 전체 노인가구의 비율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 7차 조사(2004년) 17.5%에서 1.4배 증가하여 15차 조사(2012년) 24.2%로 상승

[그림 1] 전체 노인가구의 비중

(단위: %)



주 : 전체 노인가구의 비중=전체 노인가구/전체 가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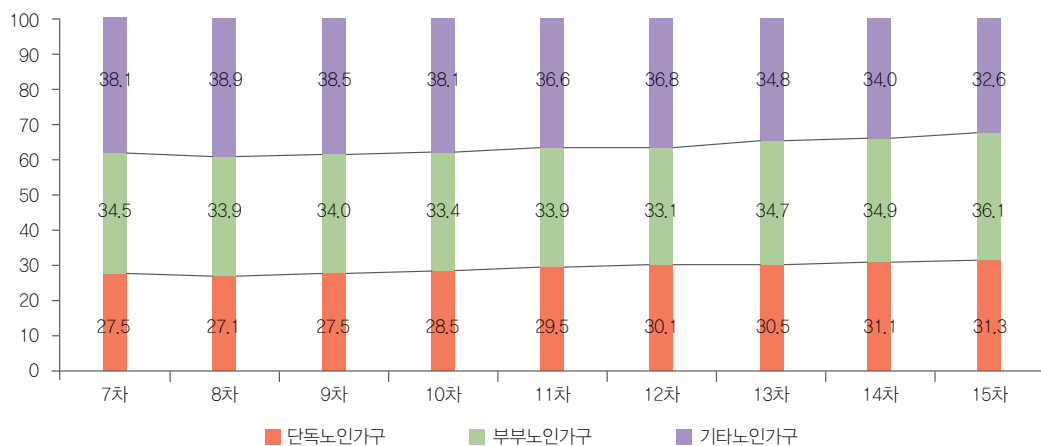
자료 : KLIPS 7~15차(2004~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 단독노인가구의 비율은 2012년 31.3%로 2004년 대비 3.8%p 증가하여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여타 노인가구들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전체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부부노인가구는 2004년 대비 1.6%p 증가하여 2012년 36.1%이며 전체 노인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기타노인가구는 2004년 38.1%로 전체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 32.6%로 빠르게 감소(5.5%p)

[그림 2] 전체 노인가구 대비 3개 하위 집단의 비중

(단위: %)



주 : 단독노인가구의 비중=단독노인가구/전체 노인가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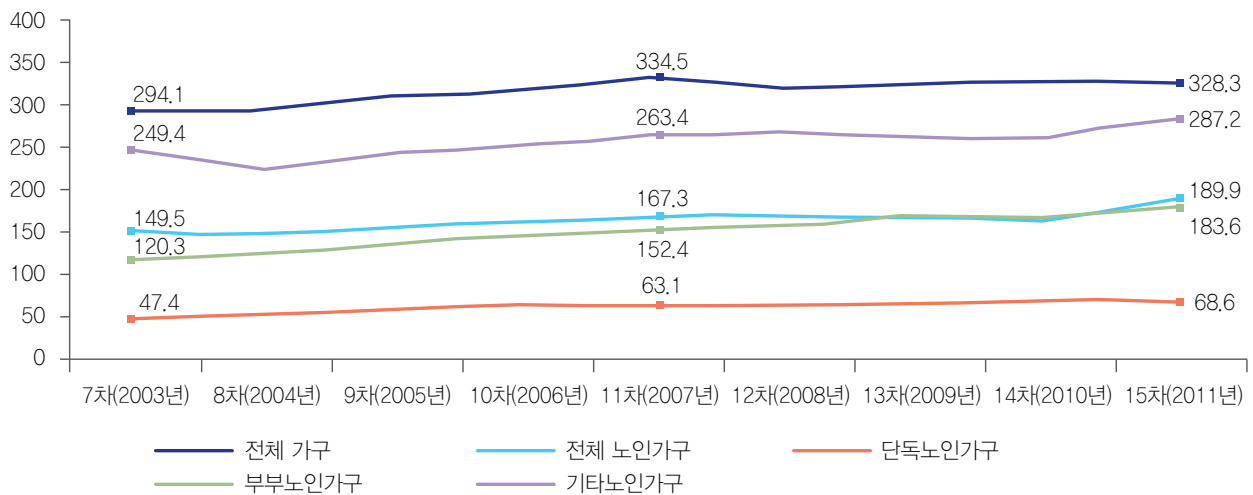
자료 : KLIPS 7~15차(2004~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 노인가구 총소득

- 단독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011년 68,6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부부노인가구 월평균 총소득의 50%인 약 95만원에도 미치지 못 해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음³⁾
 - 모든 그룹의 월평균 총소득 추이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증가율이 높지 않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부노인가구의 경우 2003년 120.3만원에서 2011년 189.9만원으로 1.6배 증가
 - 월평균 총소득은 기타노인가구가 가장 높고 단독노인가구가 가장 낮음

[그림 3] 월평균 총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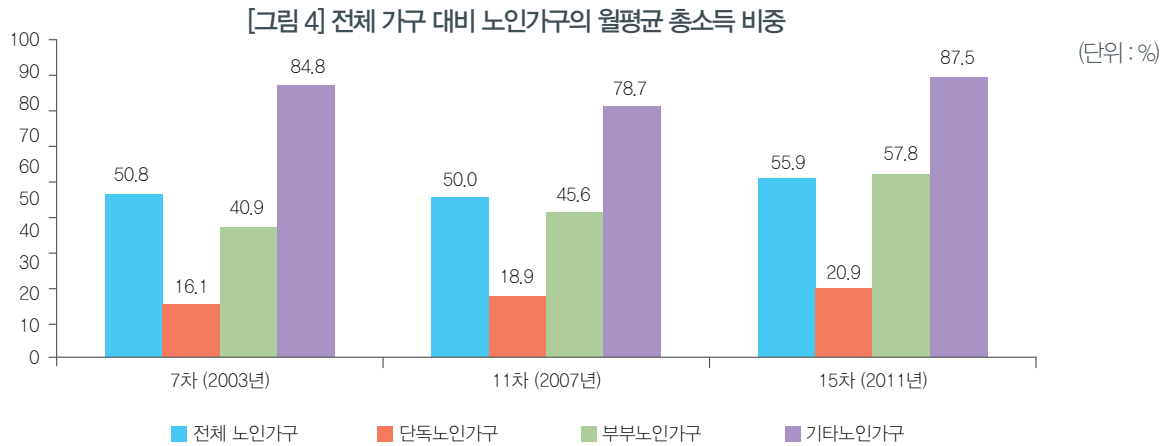
(단위: 만원)



주 :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 KLIPS 7~15차(2004~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 전체 가구 월평균 총소득 대비 단독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비중은 2003년 16.1%에서 약간씩 증가하여 2011년 20.9%이나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기타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비중은 87.5%(2011년)로 가장 높는데 이는 자녀와 동거하기 때문에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월평균 총소득이 높은 것으로 보임

3) 소득과 관련된 문항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질문



주 : 전체 노인가구의 비중=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전체 가구 월평균 총소득*100
 단독노인가구의 비중=단독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전체 가구 월평균 총소득*100
 부부노인가구의 비중=부부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전체 가구 월평균 총소득*100
 기타노인가구의 비중=기타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전체 가구 월평균 총소득*100

자료 : KLIPS 7, 11, 15차(2004, 2008, 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 2003년 이후 계속하여 단독노인가구의 대부분이 소득하위 40%이하⁴⁾에 속하며 특히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비중은 2011년 76.8%로 2007년 대비 약간 감소(79.4%)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전체 노인가구는 2003년에는 절반을 약간 상회한 51.3%였으나 2011년에는 49.4%로 약간 하락 추세
- 부부노인가구는 2003년에 절반 이상인 52.6%가 소득하위 20%에 포함되었으나 2011년에는 41.4%로 감소 추세이며 소득상위 20%의 비율은 2011년에 9.3%로 높아짐

<표 1> 분위별 전체 가구 월평균 총소득의 기준에 대한 노인가구의 분포

(단위 : %)

	전체 노인가구			단독노인가구			부부노인가구		
	7차 (2003년)	11차 (2007년)	15차 (2011년)	7차 (2003년)	11차 (2007년)	15차 (2011년)	7차 (2003년)	11차 (2007년)	15차 (2011년)
1분위	51.3	51.5	49.4	75.7	79.4	76.8	52.6	49.0	41.4
2분위	21.3	21.4	19.2	17.4	12.4	14.1	20.0	23.7	24.2
3분위	13.3	11.4	13.6	4.7	3.9	5.4	13.7	14.2	16.9
4분위	7.9	8.9	10.8	1.5	1.5	2.9	8.0	7.2	8.2
5분위	6.2	6.8	7.0	0.7	2.9	0.8	5.8	6.0	9.3

주 : 분위수는 전체 가구의 실질 균등화된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의 물가지수(2010년=100기준)를 반영한 실질소득=(명목소득/당해연도 소비자 물가지수)×100으로 산출
 가구의 실질 균등화된 월평균 총소득=가구의 실질 월평균 총소득/가구원수의 제곱근

자료 : KLIPS 7, 11, 15차(2004, 2008, 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4) 전체 가구의 실질 균등화된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분위별 값을 계산하였음 (단위: 만원)

	7차(2003년)	11차(2007년)	15차(2011년)
1분위	30.9	43.1	51.3
2분위	85.7	102.7	112.2
3분위	132.8	155.5	165.8
4분위	187.2	218.0	227.4
5분위	355.3	423.3	399.4

3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소득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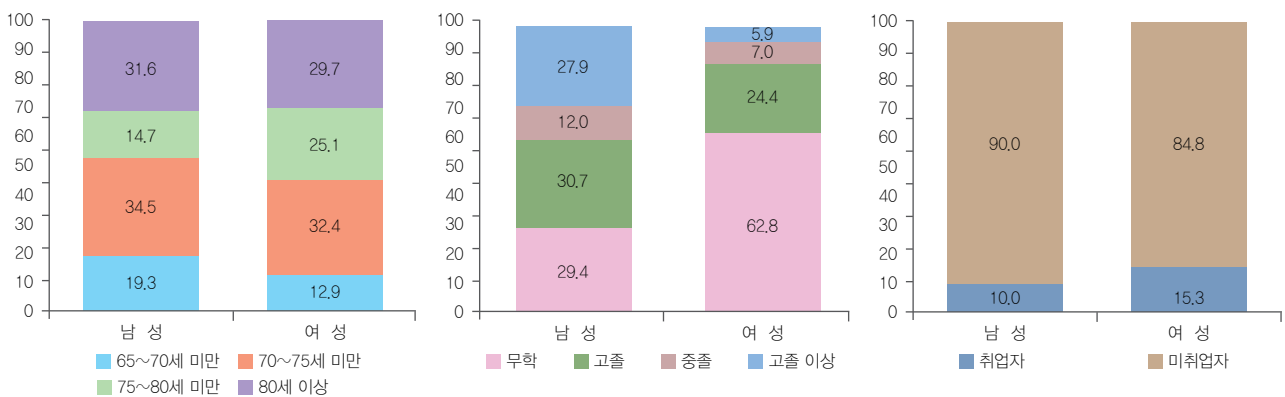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대부분은 75세 이상 저학력 미취업 여성으로 구성

-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4.6배 높은 82.2%를 차지
- 여성은 50% 이상이 75세 이상(54.8%)인 반면 남성은 75세 미만(53.8%)의 비율이 더 많음
-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학력의 비율이 높음(여성의 62.8%가 무학으로 남성보다 약 2.1배 많고, 남성은 고졸 이상이 27.9%로 여성보다 약 4.7배 높음)
- 남성과 여성 모두 미취업 비율이 매우 높음(남성 미취업자: 90.0%, 여성 미취업자: 84.8%)

[그림 5]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자료 : KLIPS 7, 11, 15차(2004, 2008, 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현황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년 27.1만원에서 2011년에는 1.7배 증가한 45.6만원⁵⁾으로 나타남

- 2003년에는 이전소득이 82.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근로소득과 사회보험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77.6%로 하락 추세이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
- 이전소득 중에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항상 높아 사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11년 월평균 공적이전소득 11.7만원, 월평균 사적이전소득 22.6만원
- 월평균 사회보험소득은 2011년 4.2만원으로 2003년 대비 6배 증가하였고 사회보험소득 비중 또한 2003년 3.1%에서 2011년 8.5%로 2.7배 증가하여 사회보험소득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는 약 24%정도만이 받고 있음
- 월평균 근로소득은 2003년 3.3만원에서 약 8천원 증가하여 2011년 4.1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⁶⁾ 근로소득의 비중은 2003년 9.8%에서 2011년 8.5%로 점점 감소추세

5) 2011년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원의 85.6%에 해당

6) 근로소득이 없는 비중이 80%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2003년 : 86.8%, 2007년 : 84.8%, 2011년 : 84.8%)

〈표 2〉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세부 항목별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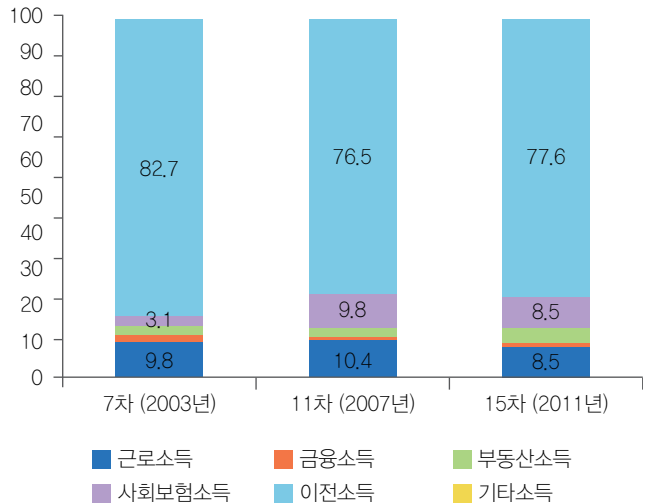
(단위: 만원)

	7차(2003년)	11차(2007년)	15차(2011년)
근로소득	3.3	4.5	4.1
금융소득	0.6	0.3	0.7
부동산소득	0.6	1.2	2.3
사회보험소득	0.7	3.4	4.2
이전소득	21.9	29.7	34.3
공적	6.6	7.3	11.7
사적	15.3	22.4	22.6
기타소득	0.0	0.0	0.0
총소득	27.1	39.2	45.6

주 : 실질 균등화된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 KLIPS 7, 11, 15차(2004, 2008, 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그림 6]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세부 항목별 월평균 소득 비중

(단위: %)



주 : 각 항목별 월평균 소득 비중 = 각 항목별 월평균 소득 / 월평균 총소득 * 100
 자료 : KLIPS 7, 11, 15차(2004, 2008, 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4

요약 및 시사점

- 단독노인가구의 비율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31.3%이며 전체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증가 추세
- 단독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011년 68.6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부부노인가구 월평균 총소득의 절반인 약 95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대부분은 75세 이상 저학력 미취업인 여성으로 구성
- 저소득층 단독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1년에는 45.6만원으로 2003년 대비 1.7배 증가하였는데 주요 소득원은 이전소득이며 다음으로 근로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이 차지함
-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단독노인을 위한 안정적인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